

## 漁港投資

# 內港埋沒 더욱深刻 土砂流入 막아야

韓 亨 久 <江口水協 組合長>



**강** 구항은 북위 36도21분, 동경 129도23분인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항으로 주변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어업기반시설이다.

강구항은 항만법에 의해 제2종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이용하는 선박을 보면 골재, 석탄을 운반하는 운반선이 일부이고, 대부분이 어선으로서 전체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용·용도 어느 면에서나 어항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느 해안에서나 볼 수 있는데 부산남항, 주문진, 거진, 감포, 구룡포, 군산, 여수, 삼천포항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어선의 이용률이 타 선박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 강구항의 경우 항 이용자입장에서 개발의 측면을 고려해 볼때, 항만청지정 2종항으로

두는 것이 예산확보나 개발면에서 수산청관리 지정항으로 두는 것보다는 유리할 것 같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우리나라 어항개발 추세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앞으로 강구항을 수산청관리항으로 지정하여 수산업의 중요한 생산기반 시설이며 지역 사회발전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으로서 개발하고 간접시설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동해안의 고속화도로 개통을 계기로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 강구항은 1927~1936년까지 9년간 3차에 걸쳐 시설한 방파제 340m와 도수제 및 계단식물양장 755m는 5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매년 홍수시마다 오십천상류에서 토사가 유입되어 내항이 매몰되는가 하면 외해로부터 침입되는 풍랑으로 인하여 이용어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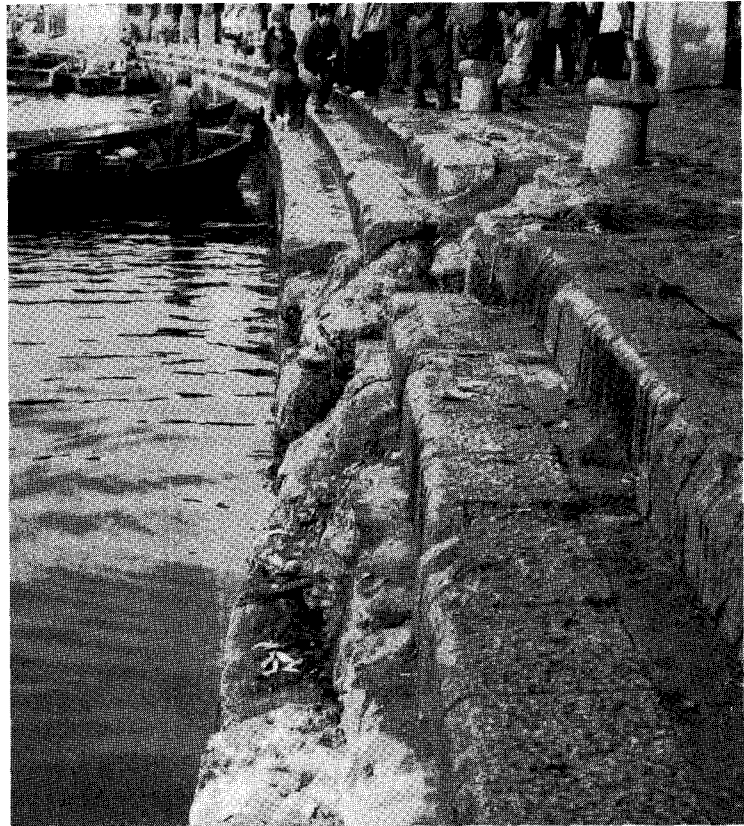
불편과 위험을 함께 안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계단식 물양장은 수면으로부터 60~70cm 높이의 첫째계단과 각각 25cm 높이의 둘째와 셋째계단으로 축조되어 당시 5톤미만의 소형어선에는 적합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연안 어족자원의 감소현상에 따라 주어장인 연안어장을 벗어나 근해 및 원양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어선의 규모도 100톤급이상으로 대형화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성수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물양장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성어기에는 물양장시설의 절대부족에 따라 어획물하역시간이 지연되어 생선의 선도가 떨어짐으로써 어가의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50여년전에 축조된 계단식 물양장은 그동안 여러군데 파손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개보수된 바 없다. 또한 평상시 어선이 접안할 때 충격을 줄이고 선체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방충재(타이어웬드) 시설은 80%이상이 파손되어 선체의 내용년수 감소를 조장하고 있고 어선수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홍수로 인하여 오십천 강물이 불어나 강의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해에서 들어오는 파도에 의해 어선이 1m이상 떠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선체의 좌우현이 계단식물양장에 부딪혀 선체가 파손되는가 하면 지난 85년 브렌다 태풍 때는 20톤급어선 3척이 침몰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강구항을 근거지로 해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이라 할지라도 30톤급이상의 약 100여



적은 본항내 피항을 기피하고 기상특보상황하의 위험을 무릅쓰고 40여km나 떨어져 있는 포항내항까지 피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사고발생이 없었지만 예고없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생각해 볼때 근본적인 대책은 노후된 기존의 물양장을 높이 1.5m내외의 현대식 물양장으로 조속히 확충하는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오십천을 끼고 있는 강구항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매년 유입토사에 의한 내항매몰에 대해서는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강구항을 예로 들어

보았지만 대체로 이와 같은 여건에서 어선의 안전정박이나 피해예방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항의 개발 및 보수보강사업을 확대하여 어항기능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항예산이 보다 증액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예산으로 어항기능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감으로써 기상악화시 어선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고, 또한 수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되어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㉔